

경찰서장과 경우회장

합동만찬 개최

구은수 총북 보은 경찰서장

『선배 警友들을 예우하는 것은 후배 경찰관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은수 총북 보은서장이 선배들의 모임인 警友會에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많은 警友들로부터 고마움을 사고 있다.

최근 구은수 서장은 警友들의 생일 날인 경우의 날이 되자, 하루 전날 저녁에 인근 영동의 김일준 서장, 육천의 송태현 서장과 협의하여 정회승 영동 경우회장, 김완석 보은 경우회장, 전대식 옥천 경우회장 등을 초대하여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지역 치안문제에 대한 선배들의 고견을 듣는 한편 警友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과 경우회 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또한 다음 날인 경우의 날에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비롯, 각종 행사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경찰서 직원들에게는 선배들을 예우하는 본분을 보였고, 선배 경우들에게는 자신들이 영원한 경찰인이라는 소속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줌과 동시에 경우들의 마음속에 고마운 후배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던 것이다.

특히 구은수 서장은 지난해 8월쯤에 경찰서내에 있던 협소한 경우회 사무실이 선배들에게 불편한 것을 알고 폐쇄된 관내 파출소 건물에 선배 경우들의 보급지리로 마련해 줌으로서 지역회의 활성화 토대를 만들어 주기도 해 지난해 11월 경우의 날을 맞아 구흥일 경우회 중앙회장의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바로 직전 근무지였던 영동경찰서장 재직 당시에도 폐쇄된 관내 파출소를 선배 경우들의 보급지리로 만들어 줌으로서 영동 경우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警友 장학기금 기탁 活氣

문학동 이사장 2천 5백만원, 박종순 여경회장 1천만원 추가 기탁

공석중인 理事에 박옥자 회원 선출



문학동 이사장



박종순 여경회장



박옥자 이사

경우장학회가 최근 문학동 이사장, 구흥일 경우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新任 구흥일 경우회장과 상견례를 겸한 이사회를 갖고 2005년도 수입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2005년 장학금 수혜자 33명을 확정했다. 한편 공석중인 理事 자리에

는 박옥자 여경회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문학동 이사장이 추가로 장학금 2천 5백만원을, 박종순 여경회장이 추가로 1천만원을 기탁했는데, 이로써 문학동 이사장은 이미 기탁한

1억 2천 5백만원을 합쳐 1억 5천만원, 박종순 여경회장은 이미 기탁한 1억원을 합쳐 1억 1천만원을 기탁하게 되었다.

이날 문학동 이사장은 『뜻 있는 警友님들의 基金 기탁에 힘입어 경우장학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치하하는 한편 기금 기탁자들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구흥일 경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범 경우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기금을 기탁하신 분들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주력하여 보다 많은 경우자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구흥일 중앙회장 전국 市道·地域會 방문



구흥일 중앙회장이 전남 순천경우회를 방문해 답소를 나누고 있다.

구흥일 중앙회장의 제1차 전국 시도·지역회 방문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지난해 12월 13일 광주광역시 경우회를 시작으로 지역회 순방에 나선 구흥일 회장은 전남, 경남, 부산, 대구경북 경우회와 산하의 일부 지역회 및 부산해경 경우회를 방문하고 시도·지역 경우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지방청장, 서장 등과 함께한 자리

에서 참채된 지역 경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다.

구 회장은 가는 곳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老경우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담당하고 활기찬 모습의 경우회로 거듭나서 현직 경찰의 든든한 후원 조직이 되자」고 역설했다.

이번 구흥일 회장의 지역회 방문에서 지방청장, 서장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선배 경우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우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물론 전현직간에 대화의 폭을 넓히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경우회는 이번 중앙회장의 각급회 방문이 전현직 유대강화와 지역회 조직발전 등에 큰 활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내년 초부터 제2차 지역회 순방 계획에 의거 나머지 지역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기고

사리판단을 하는 정권이 됐으면

— 宋復 (연세대 명예교수)



김대중 정권 후기로 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는 근 5년동안 활기를 잃고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지난 2년 사이 더더욱 그러하고, 2005년은 더 나빠질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얼마전 열린 인터넷서널에서 조 사환바에 의하면 '내년 (2005)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대답한 국민이 62%나 된다. 그에 비해 중국은 9%, 일본도 29%에 불과하다.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도가 우리의 경우 중국 7배이고 일본의 2배가 넘는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토록 활기차던 우리 경제가 어찌서 그토록 내려앉고 있는가. 이유는 명백하다. 그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오직 정권담당자들만 모르고 있다.

현정권 담당자들만 모르고 있는 그 명명백백한 이유는 현정권 담당자들의 '갈등부추김·갈등조장·갈등증폭' 때문이다.

경제는 갈등을 증폭시키면 자동적으로 침체한다.

호황이 급격히 불황으로 바뀐다. 기업의 생명인 투자가 갑자기 줄어든다.

국민들은 돈을 장농 속에 감추고 소비를 하려하지 않는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만큼 '불안'에 민감한 것이 없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기업과 소비자는 본능적으로 투자를 멈추고 소비를 줄인다.

생각해 보라.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데 누가 돈을 쓰려 하겠는가. 권력은 칼이다. 그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데 누가 그 칼 앞에 대법해될 수 있겠는가. 내 남없이 숨을 수 밖에 없다. 숨어서 고개를 움추리고 그 칼 든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상책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 예전 그것이 상책이라해도, 국가 경제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제거하는데 온 정성을 쏟는다. 우리 경제가 반드시 좋아진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록 정책을 펴고 제도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

반대로 '나쁜 정부'는 사람들을 좌우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한다.

과거사를 들추면 먼지 안나는 사람 있느냐. 먼지나는 사람들 중 내편 아닌 사람은 그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 내 편이 아닌 언론, 내편을 호되게 비판하는 신문은 억지로라도 법을 만들어 어떻게든 독자를 수를 짝 줄여 놓겠다. 국보법 사학법-내 편이 싫어하는데 국가안보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육발전은 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편이 원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절대다수가 아무리 갈망해도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내편 내편만 있어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키우고 늘어놓는다.

지난 2년 사이, 우리는 앞의 '좋은 정부'보다 뒤의 '나쁜 정부'를 경험해 왔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활기를 잃고 전망이 어둡다. 그럼에도 현정권은 무엇이 '좋은 정부'이고, 무엇이 '나쁜 정부'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현정사상 현 정권만큼 '무식'과 '무지'가 겹쳐 있는 예는 찾을 수가 없다. 무식(無識)은 글자 그대로 교육 수준이 낮아 '배움이 없는 것'이다. 무지(無知)는 배움이 있는데 깨달음이 없어 '사리에 어두운 것'이다. 배움도 없고 사리에도 어둡기 때문에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 하고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모른다.

국보법이 없어지면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가 날릴지 모른다. 실제 날릴 수 없더라도 '날릴지 모른다'는 것만으로 국민은 불안해 한다.

그 불안심리가 경제를 위축시킨다. 배움이 모자라고 사리판단이 제대로 안되는 사람들이 칼을 쥐고 있다. 국민은 의당 전율할 수 밖에 없다. 그 전율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면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날은 날마다 어두운 날이 아닐 수 없다.

2005년의 국민의 기원은 현정권사람들이 제발 '배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사리판단'(事理判斷)을 하면 하는 바램 뿐이다. 국민의 소망은 소박하다. '사리판단'을 하는 정권.

그 바램조차도 이뤄주지 못한다면, 국민은 오직 체념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정권을 만들어낸 것 만큼 자업자득이지 않겠는가.

李相斗의 교통상식(33)

이럴 때 이렇게



서울 천호동에서 의류점을 경영하고 있는 성 모씨(42세)는 며칠 전 영등포에 용무가 있어 승용차를 운전,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길이었다. 마침 통행 차량도 많지 않아 성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높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상냥감만한 돌맹이가 성씨의 타이어에 밟혀 튀겨 나가더니 옆에서 달리고 있던 승용차 유리에 바로 맞는 게 아닌가. 다행히 옆 차량의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여 큰 사고는 면했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 위 돌 튀어 상대 유리 깬을 때 처벌 안해

으나 유리를 깨뜨렸으니 성씨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또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린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해를 입혔으니 책임져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것이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성씨는 막막했다.

성씨로서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피해가 생겼으니 성씨가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한 일 같았다.

결국 성씨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 사고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고 난 조사경찰관의 말은 명쾌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가 운전 중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

히 했을 때 지게 되는 것이며 이번 사고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돌맹이까지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어 성씨에게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깨진 유리에 대해 성씨가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이 있으니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276-43 (101호) 전화: 02-489-2380~1

警友會 발전 방안 論議 元老 警友 정기 모임 가져

歷代 치안총수 및 경우회장 모임이 지난 12월 17일 경기 안성 C.C에서 元老 警友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元老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우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교환의場이 되었다.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한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모임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우회 활성화와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元老 경우 모임은 지난 해 11월 10일 구흥일 경우회장이 첫 오찬 간담회를 마련한 이래 지난 11월 29일 경찰대학 체력장에서 그 두 번째 모임을 가진 바 있다.